모녀애착의 세대 전수와 성인 미혼 딸의 자아탄력성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other-Daughter Attachment and Unmarried Adult Daughter's Ego-Resiliency

신라대학교 가족상담학과
석 사 임 경 이*
신라대학교 가족노인복지학과
부 교 수 전 영 주
Dept. of Marriage & Family Therapy Studies, Silla Univ.
Master : Im, Kyoung-Ei
Dept. of Family & Elderly Welfare Studies, Silla Univ.
Professor : Chun, Young-Ju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other-daughter attachment across three generations, and to determine whether the mother-daughter attachment of three generations influences the adult daughter's ego-resilie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10 unmarried adult women aged 20~29, residing in the Busan area, and their 310 middle-aged mothers. The mothers responded to two sets of questionnaire investigating their attachment to their mothers (G1-G2) in the past and the present attachment to their adult daughters (G2-G3). Meanwhile, the adult daughters were given questionnaires regarding their attachment to their mothers and their ego-resiliency. The measure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and the Ego-Resiliency Scale (ER). Among the distributed questionnaires, 265 sets were collected and 252 sets were actually analyzed using SPSS 12.0 after 13 sets had been excluded due to incomplete data. Basic statistics were used such as frequency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adult daughter-mother (G2-G3) attachment was explained mostly by mother-grandmother (G1-G2) attachment, daughter's age, and 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The strongest factor was the mother-grandmother attachment which implies the transmission of attachment through generations. Second, among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ego-resilience of an unmarried adult daughter, attachment to one's mother perceived by the daughter turned out to be the most significant. Especially, the more positive the adult daughter's emotion toward her mother and the higher the daughter's education, the stronger the ego-resilience of the adult single daughter was. It was concluded that the mother-daughter attachment remained consistent throughout three generations, which influenced the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of the adult unmarried daughter.

▲주요어(Key Words) : 모녀애착(mother-daughter attachment), 세대전수(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성인 미혼 딸(unmarried adult daughter), 자아탄력성(ego-resiliency)

* 교신저자 : 임경이 (E-mail : ktsm1811@hanmail.net)
본 고는 교신저자의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 일부임

Ⅰ. 서 론

부모자녀관계는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가족학이나 아동학 분야에서 주된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생애초기에 양육자와 자녀사이에 형성되는 애착은 인간발달과 심리적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개념으로 오랫동안 많은 발달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강진경, 2001; 장미자, 1998). 최근에는 초기 애착이 내적작동모델의 형태로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개인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정혜승, 2001). 애착연구에서 전통적으로 부자 애착보다 모자 애착이 특별한 관계로 다루어졌는데 이는 어머니가 주된 양육자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모녀 애착은 가족성원들 간의 어떠한 관계보다도 지속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증가되면서, 모녀관계는 예전보다 더욱 오랫동안, 강도 높게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평균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정서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결혼한 여성조차 어머니 근처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종의 모계중심의 사회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30대의 젊은 여성들은 결혼보다 일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보다 모계중심의 새로운 가족질서에 편입되는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김종래, 2003). 이는 과거에 비해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고 결혼과 독립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심지어 독립한 후에도 부모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성인 여성들이 증가 하고 있다. 또한 결혼을 한 이후에도 많은 여성들의 사회생활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을 중년기 어머니와 나누게 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친밀한 모녀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변화하는 성인가족에 있어서 모녀관계의 전생애적 정서적 관계 특성을 이해하고, 이것이 성인여성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그러나 세대 전수적 관점에서 모녀애착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으며, 심지어 성인기 미혼 딸과 어머니의 애착을 다룬 연구도 많지 않다. 모녀애착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생애 초기 단계나 중년기의 딸과 노년기의 어머니처럼 의존과 보살핌의 관계에 치중하여 연구되어 왔다. 성인기 미혼 딸과 어머니의 애착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20대 성인기 미혼 여성의 경우 발단단계 특성상 독립의 시기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미혼여성이 정서적 관계를 맺는 대상이 어머니에서 타인에게 전환된다고 가정하고 개인의 성격특성과 관계적 특성에 관한 성인기 애착 연구가 중점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의 혼인연령이 점점 늦어지는 추세에서 성인기의 모녀관계는 여전히 어떤 관계보다 강력하며, 딸은 어머니로부터 개별화하는 동시에 연결성을 유지하는 관계로 지속되고 있다. Kaplan 등(1991)에 의하면 친밀한 모녀관계에서 형성되는 관계성은 유리보다는 상호 정서적 공감, 이해, 수용 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변화는 되지만 꾸준히 계속된다고 하였다. 가족의 정서적 분위기는 주로 여성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딸은 성장기의 가족의 정서적 과정을 자신의 결혼생활에서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Rossi & Rossi,1990).

따라서 모녀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이 딸의 지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훗날 타인과의 관계형성과 발달과업을 이루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어머니와의 건강한 관계를 갖지 못한 성인 여성들은 심리적 적응과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20대의 성인초기에는 독립의 과업을 성취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개인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은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고 성인기의 발달과업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적응 자원으로 기능한다(이명미 등, 2004). 자아탄력성은 애착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컨대 Rice 등(1995)은 종・횡단적 연구를 통해 애착이 지속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학문적, 정서적, 사회적 적응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애착과 개인기능의 관련성을 본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아동이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준영, 2003; 정세화, 2003; 정영옥, 2002; 지수경, 2001)이며,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저조하다. 한편 부모의 학력이나 부모와의 동거여부, 경제수준과 같은 가정환경에 따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나 기대가 다른 만큼(권지은, 2003; 이영미 등, 2004; Maccoby, 1980) 성인자녀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인구학적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나라 가족에서는 여성을 중심으로 정서적 관계가 유지되고 지속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모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애착과 개인의 심리적 적응간의 관련성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대전수의 관점에서 중년기 어머니와이십대의 미혼 딸을 대상으로 삼 세대에 걸친 모녀애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외조모와 어머니의 모녀애착, 어머니와 성인 미혼 딸의 모녀애착, 성인 미혼 딸의 자아탄력성의 정도 및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둘째, 외조모와 어머니의 모녀애착이 어머니와 딸의 모녀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셋째, 외조모와 어머니의 모녀애착, 어머니와 딸의 모녀애착, 성인 미혼 딸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이 성인 미혼 딸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삼 세대 모녀애착과 성인 미혼 딸의 자아탄력성의 정도 및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외조모(G1)와 어머니(G2)의 모녀애착(G1-G2) 어머니(G2)와 성인 미혼 딸(G3)의 모녀애착(G2-G3)과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3> 삼 세대 모녀애착이 성인 미혼 딸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모녀애착

애착(attachment)의 개념은 인간의 발달과 심리적 적응에 있어 강력한 개념 틀을 제공해왔다. Bowlby(1969)가 생애초기의 모성결핍으로 인한 부적응에 대해 밝힌 이래, 인간이 특정한 타인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행동체계로 개념화되었으며, 이 개념은 오랫동안 연구자와 임상가들의 관심이 되어왔다. 애착에 대한 초기연구는 주로 영, 유아기 아동과 어머니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의 질이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박응임, 1995). 그러나 최근에는 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근거해 초기애착은 도식화되어 성인기에도 지속적으로 작동하며, 성인기의 적합한 행동체계를 이끄는 일종의 인지-정서적 구조를 제공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다(여양구, 2005)

성인기 애착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주제는 모녀애착이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상대적으로 길 뿐만 아니라, 여성특유의 정서적 유대 능력으로 인해,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어떤 관계보다도 강도 높고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이다. 정신분석가나 발달이론가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적 유대능력을 보다 많이 발달시키는 점에 주목해왔으며 특히 딸은 아들에 비해 어머니와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발달시키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박희성, 1994). 또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 지지와 근접성 추구 대상으로 어머니를 찾으며 높은 애착의 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원수경, 2005; Paterson, 1994). 어머니는 모든 자녀에게 동일시의 일차적 근원이며 양육자이지만, 아들의 경우 동일시의 대상이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바뀌어야만 하는 반면 딸은 어머니와의 최초의 관계와 애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원수경 2005; Chodorow, 1978).

모녀 관계에 대한 외국의 연구에서는 직업, 동일시, 성역할과 태도, 갈등과 문화 간 차이 등 주제별로 모녀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의 모녀 관계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선행연구로는 어머니와 딸 두 세대 간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이숙신, 1974)와 모-녀 간 성역할 태도의 일치도 연구(윤소영, 1990),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모-녀 관계를 다룬 연구(김진희, 1991), 모녀의 성격유형과 애착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강신옥, 1995), 3세대 모녀간의 애착에 관한 연구(조병은 등, 1996)등이 있다. 그런데 모녀관계의 연구에서 대부분 어머니와 딸 양쪽 모두를 연구에 참여시키기 보다는 대체로 성인자녀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애착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형성되는 것이므로 보다 정확하게 모녀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딸 모두에게 정보를 수집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어머니와 딸은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하고 독특한 애착관계를 일생동안 유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20대 성인 미혼 여성과 그들의 중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모녀관계에 초점을 두어 애착의 세대 전수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애착의 세대 전수와 성인기 애착

성인애착이론은 한번 형성된 애착이 전생애 동안 계속될 뿐만 아니라 애착의 질적 특성이 대물림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박은영, 2002). 개인이 지니는 애착의 특성이 세대를 관통해 지속되는가는 Bowlby(1969)의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정서에 관심을 가진 가족기능론자들의 관심이기도 하였다(Bowen, 1978). 애착행동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속되는 요인이라고 가정한 Bowlby는 어머니와 영아의 애착양식이 유의하게 일치함으로서 세대에 걸쳐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애착의 근접성 추구요소는 아동초기에 전수되며 안락감은 청소년기에 전수되고 안전기지는 성인초기에 전수된다. 아동기에 형성된 애착체계는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애착의 영향이 전 생애동안 계속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다(이정희, 2005). 또한 청년기와 성인기에서 현재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평가하는 것은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모녀관계에서의 애착은 세대 간에 전수되는 것으로 보고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개인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자녀와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애착의 세대 간 연속성을 가져온다는 이론을 지지한다(박성연 등, 1995). Bowlby(1969)는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전 생애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질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양육방식이 결정되며, 결정된 양육방식에 의해 아동의 애착양식이 결정된다고 가정함으로써 애착이 대물림된다고 주장하였다(장휘숙, 1997). 이에 따라 애착이 영아기나 아동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생동안 형성되고 유지되며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애착의 세대 간 전수현상에 대한 연구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영국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는 임신한 어머니들에게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을 실시하고 그들의 영아가 생후 12개월이 되었을 때 낯선 상황에서의 애착양식을 측정하였다. 어머니와 영아사이의 애착의 일치율은 75%에 이르렀다. 또한 경제적으로 가난한 소수 민족 집단 출신의 청소년 어머니들과 그들이 출산한 영아의 애착양식 사이에서 일치율도 78%에 이르렀으며(김재희, 2000; Ward & Carlson, 1995), 외할머니-어머니-영아의 3세대를 연구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일치율을 나타내었다(허미선, 2000; Benoit & Parker, 1994). 어머니의 대부모와의 애착과 자녀의 애착에 관한 김유미(2007)연구에서도 모-자녀 애착의 전수 유형에서 세대 간 전수를 이룬 애착 유형이 59%로 나타나, 애착이 세대 전수를 이루는 양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초기에 형성된 애착의 정도가 평생 동안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수된다는 Bowlby(1969)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내적작동모델' 을 근거로 영아기에 형성된 어머니와의 애착이 그 이후 전 생애 동안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 및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애착연구가 성인애착 및 세대전수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기 애착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비로소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양지윤, 2006; Bartholomew & Horowitz, 1991; Hazan & Shaver, 1987 재인용). 또한 Main과 동료들(1985)에 의해 애착과 관련된 성인의 내적실행모델을 측정하는'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 AAI)'이 개발되고,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Armsden과 Grreenberg (1987)의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PPA)가 개발됨으로써 이를 이용한 청년기 애착에 관한 연구들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게 되었다. 최근 청년기의 애착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의 관계유지와 자율성 획득의 성공적인 균형이 청년기의 애착안정성의 표명임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밝히고 있듯이, 애착은 생애초기뿐만 아니라 내적도식과정을 통해 성인기에도 이어지며, 양육행동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녀애착의 세대전수에 초점을 맞추어 삼 세대에 걸친 모녀관계의 애착의 유사성을 살펴볼 것이다.

3. 자아탄력성과 애착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내부・외부 문제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력과 상황재구성능력, 다양한 문제해결전략으로,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여유롭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적응능력으로 의미하는 개인의 성격자원이며 부모와의 안정애착 및 다른 여러 긍정적 특성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아탄력성은 발달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의 제반 생활영역에서도 발현되는 성격특성(구형모, 2000; Felsman & Vaillant, 1987)으로 애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이들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영유아는 또래관계가 보다 활발하고, 문제해결 상황에서도 더 성취지향적인 경향을 보인다. 청소년기의 교우관계, 학업성취 등의 학교생활적응에도 부모와의 애착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현순, 2005; Armsden & Greenberg, 1987 재인용).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가족과의 적응, 자신에 대한 적응, 정서적인 적응, 대인관계적인 적응을 잘하며, 어머니의 양육행동보다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애착안정성이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정희, 2002). 나아가 유아기 애착경험은 성인기 직장생활, 부부관계 등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전효정, 1999). 적응과 애착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성 있게 부모에 대한 안정적 애착이 높은 자기존중감, 인생만족, 대학생활 적응, 낮은 심리적 괴로움, 그리고 사회적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미 등, 2004; 장휘숙, 2002).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정 애착 유형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고, 부정적 감정이 낮으며,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적응력 및 유능감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휘숙, 2001; Kerns & Steven, 1996; Kobak & Sceery, 1988; Shaver & Brennan, 1992). 초기애착의 질적 특성은 성인기까지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되어 초기 성인기의 대인관계와 성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Bretherton, 1985). 또한 Kobak와 Sceery(1988)는 안정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청년기 동안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외부적 도전에 직면했을 때 당황함이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큰 자아탄력성을 지닐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 생애적 관점에서의 성인애착과 그에 따른 심리적 적응이나 결혼적응에 관한 국내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애착은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연 등, 1995; 유은희, 1990; 조병은 등, 1996). 즉, 부모자녀간의 애착은 전 생애에 걸쳐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자녀간의 상호적인 애착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전 생애는 물론 다세대를 통해 모녀간의 애착이 성인 여성의 사회적 기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조모-어머니간의 모녀애착이 어머니-성인 미혼 딸 간의 모녀애착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삼 세대 모녀애착이 성인 미혼 딸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

1) 표집방법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20대(20세~29세) 성인미혼여성 310명과 그들의 중년기 어머니 31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총 10명의 20대 성인미혼여성(5명)과 중년기 어머니(5명)를 대상으로 2007년 8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7년 8월과 9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부산지역의 3개 대학의 여대생 및 미혼의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자가 직접 자료배포와 수집에 참여하였다. 각 대학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방법을 설명한 후 배포하였고, 어머니용 설문지의 회수를 위해 일주일 뒤에 다시 방문하여 수거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직장인 미혼여성의 경우 복지기관, 교육기관, 동호회, 친목단체, 대학교, 병원, 중소기업, 쇼핑센터, 교육기관, 스포츠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발송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어머니와 딸은 동일한 일련 번호(ID)가 부여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동봉되었던 봉투에 밀봉하여 직접 회수하였고, 원거리의 경우 약 10일 가량 기간을 두고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총 310세트(620부)가 배포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총 265세트(530부)로 회수율은 약 86%였다.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부실기재 된 것으로 판단된 13세트(26부)를 제외한 총 252세트(504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2)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N=504: 어머니 252명, 딸 252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어머니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51.26(SD=3.96)이였고, 연령범위는 40~62세였다. 연령별 분포는 50~59세가 167명(66.3%)이였으며, 40~49세 77명(30.6%), 60세 이상이 8명(3.2%)이였다. 딸의 평균 연령 24.91(SD=2.76)세였으며, 연령범위는 20~29세였다. 연령별 분포는 27~29세가 91명(36.1%)으로 가장 많았고, 24~26세가 86명(34.1%), 20~23세 75명(29.8%)이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 딸은 대학교 졸업이 168명(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63명(25%)으로, 대학원이상 21명(8.3%)이였다. 딸이 지각한 가족 경제수준은 중류 144명(57.1%)으로 가장 많았고, 중하류 78명(31.0%), 하류 17명(6.7%), 중상류 11명 (4.4%), 상류 2명(0.8%)이였다.

2. 측정도구

질문지는 어머니용과 딸용으로 나뉘며, 모녀애착 척도와 자아탄력성 척도,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배경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중년기 어머니(Generation2: G2)는 외조모(Generation1: G1)와 자신의 과거 애착(G1-G2)에 대해 회고적 방식으로 응답하였다. 성인 미혼 딸(Generation3: G3)은 그들의 중년기 어머니와의 본인 간의 현재 애착(G2-G3)에 대한 설문과 더불어 자신들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설문문항에 응답하였다.

<표 1> 어머니와 딸의 특성 N=504

변 수	분 류	어머니	딸
		N(%)	N(%)
연 령	평 균	51.26	24.91
	표준편차	3.96	2.76
	범 위	40세~62세	20세~29세
교육정도	초등학교 졸업	23(9.1)	-
	중학교 졸업	55(21.8)	-
	고등학교 졸업	156(61.9)	63(25.0)
	대학교 졸업	17(6.7)	168(66.7)
	대학원 이상	1(.4)	21(8.3)
가족경제수준	하 류	-	17(6.7)
	중하류	-	78(31.0)
	중 류	-	144(57.1)
	중상류	-	11(4.4)
	상 류	-	2(.8)
직 업	직장인	90(35.7)	158(62.6)
	학 생	-	69(27.4)
	가정주부	141(56.0)	-
	기 타	21(8.3)	25(10)

1) 모녀애착

어머니와 딸의 모녀애착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된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 척도(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PPA)"를 유은희(1991)가 또래애착을 제외하고 부모애착을 성인기와 한국 문화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애착척도 1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모녀애착 척도는 애착대상에 대한 내적표상을 어머니의 반응성(3문항), 근접 가능성에 대한 자녀의 신뢰(6문항), 자녀가 경험하는 어머니에 대한 감정(7문항)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어머니의 반응성(예: 어머니는 내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은 자녀에 대한 이해, 자녀의 의견과 요구의 존중, 자녀의 정서 상태에 대한 민감성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근접 가능성에 대한 자녀의 신뢰정도(예: 나는 고민거리가 생기면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어머니의 의견이 듣고 싶어진다)를 자녀가 스트레스 상황 시 부모와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욕구 및 행동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부모에 대한 자녀의 감정(예: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은 부모에 대한 동일시, 좋아함, 편안함, 분노, 불편함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문항은 역점 처리 하였다. 본 척도의 점수 총 범위는 16점에서 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애착 정도가 안정적이고 높음을 의미한다. 모녀 애착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외조모(G1)와 어머니(G2)의 모녀애착(G1-G2)은 .92, 어머니(G2)와 딸(G3)의 모녀애착(G2-G3)은 .93 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2)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Block(1961, 1978)에 의해 개념화되고 개발된 이후, Klohnen(1996)이 CPI(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 상의 자아탄력성 관련 문항과 상관이 높은 29개 문항들을 선별해 내었고 박현진(1996)이 번안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e Scale)를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의 하위 척도는 자신감(9문항), 대인관계 효율감(8문항), 낙관성(10문항), 분노조절(2문항) 등 다섯 하위 영역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문항은 역점 처리 하였다. 본 척도의 점수 총 범위는 29점에서 14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적인 것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9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처리 및 분석을 위해 SPSS/WIN 12.0 version 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초통계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대한 본 분석 전에 예비분석을 실행하여 척도의 기술통계를 산출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값을 검토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후 연구문제에 대한 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모녀애착의 세대전수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삼세대 모녀애착이 딸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모녀애착과 성인 딸의 자아탄력성 정도 및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1) 모녀애착과 자아탄력성의 정도

연구대상자가 지각하는 모녀애착과 자아탄력성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영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 점수범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첫 번째 변수 삼 세대 모녀애착을 측정한 외조모-어머니 모녀애착(G1-G2)은 점수범위가 20-79점이며, 평균은 57.59(SD=11.72)로서 중앙값보다 웃도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 변수 어머니-딸 모녀애착(G2-G3)은 점수범위가 32-79점이며, 평균은 62.94(SD=10.91)로서 중앙값보다 웃도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삼 세대 모녀애착의 평균이 중앙값보다 높으므로 전반적으로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인 미혼 딸(G3)이 보고한 본인의 자아탄력성은 점수범위가

<표 2> 삼세대 모녀애착과 자아탄력성

	외조모-어머니 모녀 애착 (G1-G2)	어머니-딸 모녀 애착(G2-G3)	딸의 자아탄력성
점수범위(최소~최대)	20~79	32~79	59~140
평 균	57.59	62.94	102.98
표준편차	11.72	10.91	15.49

<표 3> 삼 세대 모녀애착과 딸(G3)의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변수	외조모-어머니 모녀애착(G1-G2)	어머니-딸 모녀애착(G2-G3)	딸의 자아탄력성
외조모-어머니 모녀애착(G1-G2)	1.00		
어머니-딸 모녀애착(G2-G3)	.34**	1.00	
딸의 자아탄력성	.22**	.37**	1.00

**p<.01
주) G1:외조모, G2:어머니, G3:성인 미혼 딸

<표 4> G1-G2애착과 G2-G3애착의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

변 수		외조모-어머니 모녀애착(G1-G2)		
		자녀신뢰	어머니반응성	자녀감정
어머니-딸 모녀애착(G2-G3)	자녀신뢰	.27**	.29**	.24**
	어머니반응성	.29**	.33**	.30**
	자녀감정	.25**	.25**	.36**

**p<.01

59~140점이며, 평균은102.98(SD=15.49)로서 중앙값보다 웃도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 모녀애착과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삼 세대 모녀애착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외조모와 중년기 어머니의 모녀애착(G1-G2)은 중년기어머니와 성인 미혼 딸의 모녀애착(G2-G3)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34, p<.01).

삼 세대의 모녀애착과 딸의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외조모-어머니 모녀애착(G1-G2)은 딸의 자아탄력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22, p<.01), 어머니-딸 모녀애착(G2-G3) 역시 딸의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37, p<.01).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삼 세대에 걸친 모녀애착이 높게 지각될수록 딸의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모녀애착의 세대전수

모녀애착의 세대전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모녀애착과 모녀애착의 하위영역에 대해 Pearson의 상관분석 및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1) 외조모-어머니 모녀애착(G1-G2)과 어머니-딸 모녀애 착(G2-G3) 간의 상관관계

모녀애착의 하위영역인 근접 가능성에 대한 자녀의 신뢰정도, 어머니의 반응성, 어머니에 대한 자녀 감정 등 세 가지 요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외조모와 어머니의 모녀애착(G1-G2)의 세 가지 하위 요인과 어머니-딸 모녀애착(G2-G3)의 세 가지 하위 요인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먼저 G1-G2애착의 '자녀신뢰'는 G2-G3애착의 자녀신뢰(r=.27, p<.01), 어머니반응성(r=.29, p<.01), 자녀감정(r=.25, p<.01)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중년기 어머니(G2)가 외조모(G1)에 대한 신뢰정도가 높을수록 딸(G3)의 자녀신뢰, 어머니반응성, 자녀감정 점수가 높음을 의미 한다.

외조모와 어머니의 모녀애착(G1-G2)의 '어머니반응성'은 어머니와 딸의 모녀애착(G2-G3)의 자녀신뢰(r=.29, p<.01), 어머니반응성(r=.33, p<.01), 자녀감정(r=.25, p<.01)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G2)가 외조모의 반응성에 대해 높게 지각할수록 딸(G3)의 자녀신뢰, 어머니반응성, 자녀감정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외조모-어머니 모녀애착(G1-G2)의 '어머니에 대한 자녀감정'은 어머니-딸(G2-G3) 모녀애착의 자녀신뢰(r=.24, p<.01), 어머니반응성(r=.30, p<.01), 자녀감정(r=.36, p<.01)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중년기 어머니(G2)가 자신의 어머니(G1)에 대한 자녀감정에 대해 높게 지각할수록 성인 미혼 딸의 자녀신뢰, 어머니반응성, 자녀감정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외조모-어머니 모녀애착(G1-G2)애착이 어머니-딸 모녀애착(G2-G3)에 미치는 영향

외조모-어머니 모녀애착(G1-G2)의 하위영역이 어머니-딸 모녀애착(G2-G3)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기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어머니-딸 모녀애착(G2-G3)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학적 변수(딸의 연령, 딸의 교육수준, 딸이 지각한 가족경제수준)를

<표 5> G1-G2애착이 G2-G3애착에 미치는 영향

		단계 Ⅰ		단계 Ⅱ	
		B	β	B	β
인구 사회학적 변인	딸의 연령	.65*	.17	.76**	.19
	딸의 교육수준	-1.23	-.06	-1.44	-.07
	가족 경제수준	3.52***	.23	2.82**	.18
외조모-어머니 모녀애착 (G1-G2) 하위영역	자녀신뢰			.03	.01
	어머니반응성			.93**	.23
	자녀감정			.25	.13
상 수		42.25		25.27	
F		5.97**		8.91***	
R^2		.07		.18	
R^2 변화량				.11	

*p<.05, **p<.01, ***p<.001
주) G1:외조모, G2:어머니, G3:성인 미혼 딸

<표 6> G1-G2애착과 G2-G3애착이 딸(G3)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단계 Ⅰ		단계 Ⅱ		단계 Ⅲ	
	B	β	B	β	B	β
성인 딸 연령	.17	.03	.23	.04	-.10	-.02
성인 딸 교육수준	4.23*	.15	4.24*	.15	4.80*	.17
가족경제수준	3.09*	.14	2.30	.11	1.10	.05
외조모-어머니 모녀애착(G1-G2)			.28**	.21	.14	.11
어머니-딸 모녀애착(G2-G3)					.45***	.32
상 수	74.36		59.13		47.41	
F	4.34**		6.31***		10.61***	
R^2	.05		.09		.18	
R^2 변화량			.04		.09	

*p<.05, **p<.01, ***p<.001
주) G1:외조모, G2:어머니, G3:성인 미혼 딸

삽입한 단계 Ⅰ에서는 딸의 연령(β=.17, p<.05)과 딸이 지각한 가족경제수준(β=.23,p<.001)이 어머니-딸 모녀애착(G2-G3) 변량의 7%의 설명력을 가졌다. 즉, 딸의 연령이 높을수록, 딸이 지각한 가족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딸 모녀애착(G2-G3)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Ⅱ에서 외조모-어머니 모녀애착(G1-G2)의 하위영역을 추가하여 어머니-딸 모녀애착(G2-G3)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이 어머니-딸 모녀애착(G2-G3)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β=.23, p<.01), 이 모델의 설명력은 약 18%였다. 즉, 딸의 연령이 높을수록, 딸이 지각한 가족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어머니-딸 모녀애착(G2-G3)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모녀애착과 자아탄력성

세대전수 관점에서의 모녀애착이 성인 미혼 딸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외조모-어머니 모녀애착(G1-G2), 어머니-딸 모녀애착(G2-G3)이 딸(G3)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딸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학적 변수를 삽입한 단계 Ⅰ에서는 딸의 교육수준(β=.15, p<.05)과 가족경제수준(β=.14, p<.05)이 자아탄력성의 변량 중 5%를 설명하였다. 즉, 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딸이 지각한 가족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딸의 자아탄력성이 증가함을 의미하나, 모델의 설명력은 높지 않았다.

단계 Ⅱ에서 외조모-어머니 모녀애착(G1-G2)을 추가한 결과, G1-G2 애착(β=.21, p<.01)과 딸(G3)의 교육수준(β=.15, p<.05)

이 딸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9%로 증가하였다. 즉, 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세대의 모녀애착(G1-G2)이 높을수록 딸의 자아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Ⅲ에서는 어머니-딸 모녀애착(G2-G3)을 추가한 결과, 딸의 교육수준(β=.17, p<.05), 어머니-딸 모녀애착(G2-G3)이 딸의 자아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β=.32, p<.001), 이 모델의 설명력은 18%였다. 즉, 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딸의 자아탄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세대전수의 관점에서 삼 세대에 걸친 모녀애착과 성인 미혼 여성의 자아탄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인 미혼여성 252명과 그들의 중년기 어머니 252명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 세대 모녀애착은 안정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 딸의 자아탄력성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 세대 모녀애착과 성인 딸의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외조모와 어머니의 모녀애착은 어머니와 딸의 모녀애착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딸의 모녀애착 뿐만 아니라 외조모-어머니 모녀애착도 성인 미혼 딸의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외조모-어머니 모녀애착의 하위변수인 자녀신뢰, 어머니 반응성, 자녀감정은 어머니-딸 모녀애착의 하위변수인 자녀신뢰, 어머니 반응성, 자녀감정과 모두 상호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딸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외조모-어머니 애착요인 중 어머니(외조모)반응성이 높을수록, 성인 미혼 딸과 어머니의 모녀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인 미혼 딸의 자아탄력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딸의 교육수준과 어머니-딸 모녀애착으로 드러났다. 즉, 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딸의 모녀애착이 높을수록, 성인 미혼 딸의 자아탄력성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모녀애착이 다세대를 통해 전수된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전반적으로 삼 세대 모녀애착은 안정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 부모 자녀간의 애착관계는 비교적 안정도가 높다는 박성연(199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어머니가 과거에 본인의 어머니(외조모)가 자신의 요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성인 미혼 딸은 자신의 어머니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조모-어머니 모녀애착이 어머니-딸 모녀애착에 관련된 모든 하위변인을 더 잘 설명해주는 것은, 초기 어머니와의 관계가 내적 작동 모델을 결정짓는 중요한 경험이며 딸이 동성부모인 어머니를 더 동일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족상담의 장면에서 종종 전(前)세대의 모녀관계는 다음 세대의 가족정서역동의 바로미터가 됨을 볼 수 있다. 그만큼 가족 안에서 여성의 정서적 비중이 크다는 의미이다. 병리적으로 과잉 밀착된 모녀관계가 아닌 안정된 모녀애착은 다음 세대의 모녀관계에는 물론 딸의 결혼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딸의 연령과 가족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모녀애착도 더 안정적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Paterson 등(1984)이 어머니가 중요한 애착대상이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와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보고한 것과 일맥상통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안정된 모녀애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애착의 세대간 전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 뿐만 아니라 가족 상호작용,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자원부족, 스트레스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 개인의 환경변화를 좀 더 자세하게 추적하여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의 변화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어머니-딸의 모녀애착이 성인 미혼 딸의 자아탄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애착과 개인의 사회적 기능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이다(박성연 등, 1995; 신지욱, 2006; 조화진, 2005). 성인기 여성이 어머니와 안정애착을 형성하고 특히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감, 대인관계효율성, 낙관적 태도가 높으며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이영미 등, 2004; 조화진, 2005). 이러한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형성은 개인에게 있어 심리적 지지 자원으로 기능할 것이고, 결국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 즉 자아탄력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 미혼 딸의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킴으로서 개인의 적응능력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에 가정환경의 위험요소가 있을 지라도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인 미혼 딸의 자아탄력성이 본인의 어머니와의 애착뿐만 아니라, 전 세대의 외조모-어머니 모녀애착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외조모-어머니 모녀애착은 어머니-딸 모녀애착이 투입되었을 때 영향력이 상실되긴 하였다.) 여성의 사회적, 정서적 기능이 의미 있는 여성과의 애착관계에 의해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향후 더 연구되어야할 주제이기도 하다. 성인초기의 미혼 여성이 건강하게 성인기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인의 어머니와의 온정적이고, 애정 어린 정서적 측면의 돌봄이 중요하며, 어머니의 정서적 안정성은 또한 외조모와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여성발달의 측면에서도 함의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성인 미혼 딸의 적응자원이 되는 자아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녀애착의 요인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인 미혼 딸의 자아탄력성을 모녀애착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성인 미혼 여성의 적응과 관련된 자아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후속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인 미혼 딸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로는 딸의 교육수준이 지적되었다. 모녀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던 딸의 연령이나 가족의 경제수준은 성인 미혼 여성의 자아탄력성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다. 이는 가족의 경제적 자원보다 개인의 지적 자산이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인 미혼 딸의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은 성취욕이 강하며 대인관계를 맺는 기술이나 관련지식 등에 접할 기회가 많을 것이고 이러한 경험은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이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모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서의 모녀관계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어머니와 성인미혼여성만을 대상으로 모녀관계에 초점의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성별의 유형을 통해 애착관계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중년기 어머니와 성인 미혼 딸 간의 애착의 본질을 보다 잘 연구하기 위해서는 성인모녀관계의 심리적, 상호작용적, 그리고 발달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다양한 측면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설문조사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들이 부정적 경험을 더 적게 회상한다는 보고와 같이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다(Fox, 1995). 따라서 모녀애착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기질, 인성특성, 자녀의 기질 등의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외조모-어머니 모녀애착은 중년기 어머니가 회고적 방식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과거의 모녀관계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 왜곡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효를 강조하는 유교사상이 강하고 내향적인 인성특성이 많은 우리문화의 특성 상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애착의 경우 중년기 연구대상자들은 대부분 과거의 애착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즉, 나이가 들면서 부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보고한 애착이 실제 이들이 경험했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인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가족의 연령을 제한하거나 면접법과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심층적인 애착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인생초기에 형성된 애착이 이후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사이의 매개변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횡단연구보다는 종단연구를 통해 다양한 매개변인과 중재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통해,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의 질적 특성이 전 생애 동안 계속되고 더 나아가 세대전수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녀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 아버지, 다른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이 있으며 가족외적인 요인도 고려하여 접근하는 다각적이고도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다세대전수의 관점에서의 성인기 모녀애착과 성인 미혼 여성의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한 세대의 애착 특성만을 살펴본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성인기의 딸과 중년기 어머니 각각의 애착을 삼 세대에 걸쳐 살펴봄으로서 애착의 기능이 전 생애를 넘어 세대를 관통하며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성인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원인 자아탄력성이 모녀애착을 통해 상당 부분 예측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고, 개인의 사회적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녀애착에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해주었다. 즉, 성인미혼여성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적응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을 이해하고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녀애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위기 상황에서 자아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아탄력성을 모녀애착과 관련지어 새롭게 접근함으로써 모녀애착 연구에 대한 관심을 제기했고 추후 연구의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성의 혼인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혼인 후에도 어머니와 물리적, 정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현대사회에서 어떤 가족관계보다 긴밀하고 지속적인 모녀간의 애착은 여성발달의 맥락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특히, 가족의 정서적 측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성이 어머니와 안정애착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아동가족상담 장면에서 어느 임상가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성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일과 더불어 여성교육과 상담을 통해 안정된 모녀애착을 확산함으로서 다음 세대의 여성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참 고 문 헌】

강신옥(1995). **모-녀의 성격유형과 애착간의 관계 : 여대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진경(2001).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과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구형모(2000). **자아탄력 집단의 성격특질.**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지은(2003).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 (Ego-Resiliency)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유미(2007). **애착의 세대 전이 유형별 관련 요인 비교 분석-세대 간 전이되지 않은 애착 유형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재희(2000). **지각된 양육태도와 내적작동모델 애착의 상관과 세대 간 전이.**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종래(2003). **우마드(Womad): 여성시대의 새로운 코드.** 삼성경제연구소.

김진희(1991).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중년기 어머니와 청년기 딸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순(2005). **청소년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성연・조병은・박응임・이정순・최혜경・유은희(1995). 3세대를 통해서 본 모-자녀 애착관계와 사회적 능력: 전생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86-93.

박응임(1995). **영아-어머니 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현진(1996).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희성(1994). **기혼자녀의 친모에 대한 애착과 갈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방송(SBS)홈페이지(2007). 신모계사회-엄마 그리고 아버지. sbs 연속기획. http://news.sbs.co.kr/issue/ news_issue_talk.jsp?uniq_no.

신지욱(2006). **애착,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지윤(2006). **애착유형, 자존감, 자기침묵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인여성 표본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여양구(2005). **성인애착이 사회적 지지요청과 받기,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수경(2005). **청소년의 또래집단 수용 유형에 따른 여자 청소년과 어머니의 애착수준 및 사회성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은희(1990).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소영(1990). **모-녀간의 성역할태도 일치도 및 관련변인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정희(200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애착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영미・민하영・이윤주(2004). 부모간의 갈등 및 성인애착에 따른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63-72.

이정희(2005). **성인애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분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준영(2003). **애착의 질과 중학생의 학교적응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미자(1998). **애착의 세대간 전이-어머니의 내적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유형-.**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휘숙(1997). 애착의 전생애 모델과 대물림: 전생애 발달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6(1),** 80-97.

장휘숙(2001). 정신병리를 차단하는 요인으로서의 탄력성.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4(1),** 113-127.

장휘숙(2001). 애착과 다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105-119.

장휘숙(2002). 청년후기 부모에 대한 애착-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01-121.

전효정(1999).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성인기 애착유형과 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보육연구, 5,** 21-34.

정세화(2003). 애착안정성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학교적응.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영옥(2002). **아동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혜승・김광웅(2001). 어머니 자신의 부모 애착 및 양육행동과 자녀 애착과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4(1),** 95-105.

조병은・유은희・이정순・최혜경(1996). 3세대 모녀간의 애착, 자율성, 발달특성과 심리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91-276.

조화진(2005). **부모와의 애착 및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지수경(2001). **청소년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미선(2000). **부모의 대부모(對父模) 애착 유형과 부부 애착 유형 및 자녀의 애착안정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Bartholomew, K., & Horowitz, L. M.(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 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Benoit, F. & Parker, K. C. H. (1994). Stability and trans-mission of attachment across three generations. *Child Development, 65*, 1444-1456.

Block, J.(1978). *The O-sort methodin personality assessment and psychiatric research.* Palo, CA: consulting psy - chologists Press.

Bowen, M.(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tice. N.Y.: Jason Aronson,, Inc.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 Vol. 1. Attachment.* N.Y. :Basic Books.

Brennan, K. A & Shaver, P. R(1993). Attachment Styles and Parental Divorce. *Attachment Styles and Parental Divorce, 21(1)*, 161.

Byng-Hall,J.(1980). Symptom bearer as marital distance regulator, *Family Process, 19*: 335-365.

Chodorow, N.(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hood*,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azan, C. & Shaver, P.(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Holmes, J. (1993). 이경숙 역(2005). **존 볼비와 애착이론**. 학지사.

Kaplan, M. M., Klein & Gleason(1991). Women's self development in late adolescence, in Judith, V. J., et al.(eds), *Women's Growth in Connection.* New York: Guilford press. 122-142.

Kerns, K. A., & Stevens, A. C.(1996). Parent-child attachment in adolescence: Links to social relations and personal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25(3)*, 323-342.

Klohnen, E. C.(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67-1079.

Kobak, R. R, & Sceery, A.(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Maccoby, E. E.(1980). *Social development :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Main, M., Kaplan, K.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I. Bretherton and E. Waters(ed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66-104.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5)*, 579.

Rice, K. G., Fitz Gereenberg, D. P., Whaley, T. J., & Gibbs, C. L.(1995).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4)*, 463.

Rossi, A. & Rossi, P.(1990). *Of Human Bonding :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Y. : Aldine de Gruyter.

Ward, M. J. & Carlson, E. A.(1995). Associations among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Maternal Sensitivity, and Infant-Mother Attach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66(1)*, 69.

□ 접 수 일 : 2008년 11월 15일
□ 심 사 일 : 2008년 12월 02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01월 22일